



라오스글로벌대학교 설립을 바라보며

이종범

라오스는 어떤 나라인가?

라오스는 지리적으로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하지만 바다가 전혀 없다. 태국과 베트남, 중국과 캄보디아, 그리고 미얀마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정도의 면적을 가진 나라로서 인구는 약 650만 정도가 된다. 역사적으로는 태국의 많은 땅과 민족이 과거 라오스 땅과 민족이어서 언어와 풍습, 종교가 매우 비슷하다. 근대사는 매우 복잡해서 프랑스가 점령하기도 하고, 잠시 동안 일본이 점령하기도 하였고, 또 베트남전쟁 때에는 미국이 개입해서 내전이 일어났던 나라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75년에 사회주의인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

이 수립되었고, 우리나라와는 1995년에 정식외교관계를 맺었다.

비록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평화롭고, 개방적이며, 정치적으로는 인근 미얀마 군사정권과는 달리 안정적인 나라이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제대로 된 공장 하나 없고, 국민들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며,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같은 세계적 관광명소도 별로 없는 가난한 나라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매우 온순하고, 친절하며, 급하지 않고, 화도 안내며, 싸움도 없다. 예를 들면, 도로에서 오토바이나 자동차 등이 뒤섞여서 다니는데도 크랙션 소리 하나 내

헌신된 섬김과 교육이 살아있는 좋은 대학은 공식적으로 선교를 할 수 없는 라오스 땅에서 최선의 선교방법은 물론, 국가와 민족이 발전할 수 있는 통로이다.

지 않는 민족이다.

라오스의 종교

동남아시아가 그렇듯이 인구의 90% 이상이 불교신자이다. 도처에 크고 작은 절이 많이 있다. 가정집이나 호텔, 관공서 등 모든 곳에는 음식을 놓는 크고 작은 제단이 있을 정도이다.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어서 라오스에는 약 18만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며, 26개 정도의 가정교회와 수도 비엔티안에 3개의 교회가 있다. 또 라오스 복음교단의 신학교를 포함하여 전국에 걸쳐 500-600개의 작은 기도처가 있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특히 출세를 하려면 당원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당원이 되기는 어려운 일이며,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회나 가족 그리고 친지로부터 외면당하고 출세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업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어학원, 유치원, 초등학교, 또 스포츠 등을 통해 선교를 하고 있다. 물론 교회를 아주 시골에 세우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선교에 어려움이 있는 나라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현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전도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하거나, 미래를 보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사역을 하고 있다.

LGU 설립 이유와 목적

언급한대로 라오스는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이며, 영적으로 볼 때 불교 국가이다. 교육적으로 보면 초·중·고등학교 시설이 너무나 열악하고, 4년제 정규대학은 국립대로서 수도를 포함 두 곳뿐일 정도로 거의 없고, 교수요원도 학사출신이 대부분이다. 연구는 물론 할 수 없다. 그래도 젊은이들의 배우고 싶어하는 열망만큼은 대단한데, 갈 곳이 적어 이곳저

선교의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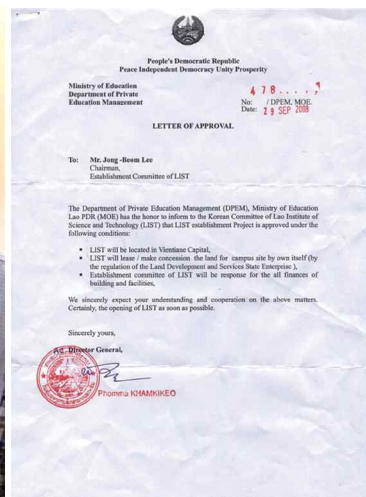
현재 우리나라 선교사 가정도 점점 증가해서 여러 가지가 활동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 선교사들도 있다. 그러나 직접선교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들 간접 방법으로 선교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NGO나 개인사업, 또는 교육사업을 통해서 한다. 그런데 NGO는 라오스 정부관계자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사

곳 방황할 수밖에 없다. 선교적으로 보아도, 하나님은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전해 듣지 못해 여러 면에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나라이다.

그러나 이런 곳에도 선교의 방법은 물론 국민들이 우리 같이 번영된 나라 안에서 장차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선교를 기반으로 한 정규대학을 설립하여 좋은 환경에서 우수한 교수진이 젊은이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교육하는 것이다. 이미 한국인이 세



라오스글로벌대학교(LGU) 부지계약



라오스정부의 대학설립승인서

워 운영되고 있는 해외의 선교기반대학에서 교직원들의 헌신된 사역과 가르침으로 변화된 후 졸업한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더 공부한 후 돌아가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는 것이 그 증거일 것이다. 헌신된 섬김과 교육이 살아있는 좋은 대학은 공식적으로 선교를 할 수 없는 라오스 땅에서 최선의 선교방법은 물론, 국가와 민족이 발전할 수 있는 통로이다.

예수님은 열악하고 소외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관심을 갖으시고 베푸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셨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지적, 물질적, 영적인 것들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만일, 라오스에 LGU가 설립된다면 영적으로 묶였던 라오스가 점점 풀려지고 복음이 서서히 전파될 것이다. 또,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변화되어 기독교 세계관을 자연스럽게 소유한 인재들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 라오스에 복음이 퍼져 나가고, 물질적으로도 번영된 국가로 발전할 것이다. 더 나아가 영적 불모지 라오스가 동남아의 영적 발원지가 될 것이다.

LGU의 교육적 특징

라오스 현지와 우리의 지원 가능성이 맞는 분야부터 개설하려는 계획에 따라 초기에는 전기전자, 컴퓨터 정보통신, 국제경영, 영어, 한국어, 체육 분야부터 시작해서, 장차 농업 등 다른 분야까지 넓히려고 한다. 교수요원은 대부분 박사학위 소지자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서구에서 파견된 전문인 선교사를 중심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밀착된 삶의 나눔을 위해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국제화를 위해 대부분 영어로 강의할 예정이다. 한국유학을 통해 선교적 사명을 심어주고, 귀국 후 교수요원이나 국가 중요부서에서 일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계획을 구상 중에 있다.

선교사역을 전혀 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외적으로는 전형적인 일반대학, 즉 또 다른 하나의 대학이 아니라 라오스 정부가 부러워할 정도의 국립대학을 능가하는 최상의 대학을 지향하지만, 내적으로는 자연스럽게 복음과 기독교세계관을 전파하는 대학 운영을 구상 중에 있다.

정말 LGU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운영하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학” 이 되고, “진리와 섬김” 을

설립정신으로 라오스 및 동남아 젊은이들이 복음을 품는 자로 자라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LGU 진행

대학설립을 위해 2006년부터 라오스 교육부 고위 관계자, 주한 라오스 대사의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설립의지를 밝혔고, 외교과정을 통해 라오스 교육부로부터 2009년 공식설립승인서를 받았다. 또한 2008년 LGU 설립위원회를 정식으로 발족하여 LGU 설립은 물론 라오스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 매달 정기적으로 예배와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 현재 청산종합건설(주) 대표이신 김상용 후원회장 등 70여명의 회원이 있으며, 라오스 현지에서 사역기간이 가장 길고 영향력 있는 선교사 네 명이 연합하여 동역하고 있다.

대학은 수도 비엔티안 내에 설립할 예정이다. 금년 7월에 설립위원회 위원들이 방문하여 수도 비엔티안에 위치한 12,000평 부지를 일단 구입하였고, 추후 더 구입 예정이며, 2013년에 기공식을 하고, 2015년에 개교 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설립사업의 재정 확보를 투명하게 하고, 넓히기 위해 (사)사랑의 열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사업을 수행하고자 사업협력 MOU를 지난 8월 체결하였다. 그리고 동남아교육개발을 위한 NGO 기관인 글로벌비전과도 MOU를 체결하여 연합하고 있다. LGU 설립을 위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지정기부하면 100% LGU 설립을 위해 사용되며, 기부한 기업이건 개인이건 다른 기부처에 비해 가장 많은 세제혜택을 받는다.

학교설립 및 운영은 앞으로 가치 '동남아교육협력

재단' 을 만들고, 이사진을 중심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현재는 재정이 많이 필요하고, 소명감을 갖고 기독교세계관으로 무장된 교수요원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미 이루어진 유사한 교육기관의 헌신도 그곳의 부족한 부분이 많아 필요하지만 아직 준비 중인 곳에서 함께 기획하며 추진하는 것은 더 없는 기쁨일 것이다.

선교기반의 대학이야말로 라오스에 소망을 심는 통로라고 믿고 뜨겁게 재정적으로, 혹은 교수요원으로 헌신해 주실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결론

현재는 모든 면을 볼 때 소망이 없어 보이는 라오스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육을 통해 이 민족은 서서히 복음화되고, 번영의 나라로 바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다. 이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소명있는 분들을 하나님은 직접 찾고 계신다. 비록 인적, 물질적 면에서 현재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직접 설립에 참여하시고 운영도 하실 것이다.

이러한 사역은 연령과 성별, 학력에 전혀 상관없다. 다만 열악하고 가난한 그 민족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에 품고 싶으신 분이시면 된다. 기도하며 함께 사역하길 원하시는 분들을 통해 정말 라오스가 어둠에서 빛으로, 좌절에서 소망의 열매를 보는 나라가 될 것이다.

*** LGU 설립추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010-2285-2728(염은순 간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원광대 전자, 전기통신학부 교수, 한양대 공대 전기공학과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독일 Berlin 공대, 영국 City 및 Brunel 대학, 스위스연방공대(ETH) 등에서 연구교수, 텍사스 주립대,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객원교수를 거쳤다. 침신대 대학원(M, Div, 및 Th, M)을 졸업하였고, 한국전기연구원 지중송전연구실장, (사)기독교기술교육동역회 이사, 실행위원장, 통합연구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현재 대한전기학회 전력계통 부회장이며, 라오스글로벌대학교(LGU) 설립위원회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